

'가고 싶은 섬' 추진 전남도 거제 외도 성공사례 현장 동행취재 해보니

자연과 인공의 조화... 年 100만명 방문에 TV·영화촬영 명소 인기

“길·터전 보전하며 수요맞게 조성 좋은 느낌”

日 나오시마 예술섬도 벤치마킹 ‘밧그림’ 완성 예정

전남도가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중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위해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낙연 지사는 25일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남 거제도 외도를 시작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일 시도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나오시마를 찾아 섬 개발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관련 다음달 4일 각 시·군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신청 마감, 5일 서류심사, 6일부터 2주간 현장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거제도 외도를 찾아 2시간여 동안 섬 곳곳을 돌며 외도 보타니아를 운영중인 이상운 대표를 만나 성공사례를 들어보고 섬 개발 구상을 들었다.

거제도 외도는 14만5000㎡의 면적에 희귀열대식물 740여 종 등 모두 3000여 종이 식재돼 있는 자연농원이다. 1969년 고 이창호·최호숙(79) 부부가 섬을 매입한 후 1995년부터 관광지로서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상운 대표는 2대째 섬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사업자로 '일반인 관광'에 중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외도 내에는 아열대식물원, 12개의 비너스상이 전시된 비너스가든, 편백나무숲으로 된 천국의 계단, 후박나무 약수터 등이, 주변에는 구조라해수욕장·외해해수욕장·해금강 등의 관광지가 있다. 또 전망대에서는 일본의 대마도의 절경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단체관광객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패권이 달라져 가족이나 연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40

년 넘게 가꿔 자연과 인공적인 가미가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외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엔딩 장면'에 등장한 외도는 이후 일본인관광객들까지 몰려들고 있어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겨냥해 향후 드라마·영화 등의 장소 대여도 고민하고 있다.

외도의 성공으로 자극을 받은 거제도 앞바다의 여러 섬에서도 유사한 개발이 시작되고 있을 정도로 외도의 성공 사례는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금은 섬주민이 모두 물으로 나갔지만, 섬주민들이 사용했던 길과 터전 등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이를 수요에 맞게 조성한 것에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의 성공 요인을 각 시·군 및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및 참여 의지로 보고, 시·군 공모에서도 현장조사 점수와 함께 가장 높은 배점을 둘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5일 경남 거제도 외도를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맨 오른쪽)에게 외도 보타니아 이상운 대표가 섬 곳곳을 설명하고 있다.

무등산, 지난해 382만명 찾았다

전년보다 3.8% 줄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381만8275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4~12월·381만8275명)보다 3.8% 줄어든 것으로, 집계 기간이 3개월이 늘었는데도 오히려 무등산 탐방객 수는 줄어든 것이다.

공단 측은 탐방객 감소 이유로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추모 분위기, 기상 악화에 따른 출입통제 일수 증가, 조류독감 등을 지목했다.

무등산의 월별 탐방객 수는 10월 40만9840명, 11월 37만5101명, 5월 35만5977

명, 4월 34만1952명 순으로 단풍철과 봄철에 집중되고 겨울철(2월 23만7511명)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탐방객 90%(341만8598명)가 중심사·원호사 등으로 유입되는 반면 화순 등 무등산 동부권으로 유입되는 탐방객은 10%(39만9677명) 수준으로 무등산 보호차원에서 탐방객 분산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무등산을 찾은 외국인인 5574명으로 중국어권 2736명, 영어권 1693명, 일본어권 286명 기타 859명 등이다.

한편, 지난해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4640만명으로 지난 2013년보다 52만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를 공간·물품 나누는 ‘공유문화도시’로”

광주시 지자체 첫 추진...공기기관·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

광주시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공간과 물품, 지식·정보 등을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눠쓰는 '공유(共有·Share)문화 도시'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물의 회의실이나 주차장, 화장실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공유'를 핵심 시정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핵심 시정 중 하나로 '공유문화 도시 구축'을 정하고, 1단계 공공기관 물품·시설·지식·정보 공유→2단계 학교·교회 등 공공성

이 강한 단체·민간 기업체의 시설 등 공유→3단계 시민의 자발적인 공유 문화 참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공유 공간으로 검토·추진중이다. 시는 최근 44개 공공기관의 조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과 강의실, 강당, 공연장, 체육시설, 주차장, 지하철 역사, 유희공간 등이 272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또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 1457곳이며 공공기관과 교회 주차장은 100곳 5071대의 수용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출자·출연기관, 학교, 교회 등 일반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도 구축된다. 시는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의 위치, 활용법, 사용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프로그램도 구축중이다.

이를 통해 현대화나 인터넷으로 빈 주차장이 있는 공유 주차장소와 빈 회의실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사용예약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공유자원을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공유기업'을 설립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다. 공유기업은 공공기관 대관부터 사용시설물 설치, 철거 등을 대행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시는 공유자원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공유문화·경제 활동가 양성, 지원조직, 인프라, 모바일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유 문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유공간이나 재산 등을 조건 없이 내놓는' 공동체 정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성공 과제' 1면에서 계속

하지만 광주 U대회 조직위와 FISU의 남북단일팀 구성 및 북한 성화 봉송 추진에 대해 정부측은 도음은커녕 불허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남북 정책과 기조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들어 인천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단절됐던 남북 스포츠 교

류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와 관련, 김황식 광주 U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치러지는 U대회가 세계평화는 물론 남북화해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방법으로 남북 단일팀, 북 응원단 파견, 북한 성화봉송 등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명량대첩’ 현장 해남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 추진

국내 건설사 “250억 투자 의향 있다”

명량대첩(鳴梁大捷)의 역사적 현장인 해남 울돌목 해상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돼 주목된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경남 통영과 여

수 케이블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해전사(海戰史)에 길이 남을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가 전역 민자 또는 해남군 참여 등의 방식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타진해 왔다고 군은 밝혔다. 두 차례 답사한 이 건설사는 250억원을 들여 해남 우수영에서 진도타워까지 1048m의 해상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명량대첩의 역사성과 물살이 회오리치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날 정도로 웅장한 울돌목의 속살을 직접 볼 수 있어 케이블카 설치 적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돌목은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협수로로 한국수역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이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유속은 13노드(24km/h)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외로광고심의의 제 140611-증-59153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엔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생활을 하십시오 / **강사 파견 업무** /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신화 문외사이라면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